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8)

不 卜 可 知
불 복 가 지

점을 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일들을 궁금해 하였다. 만약에 장차 벌어질 일을 안다면 이에 대비하여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신(神)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이 이를 바 점(占)이다.

사실 점이라는 글자는 거북의 등으로 상징되는 그림인 모에 송곳을 상징하는 투를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이는 거북의 등에 송곳을 끊어 거기에 나타나는 균열(龜裂)을 보고 정인(眞人)이 해석하였다. 고대에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 특히 이웃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를 발동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이 점을 쳤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점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신(神)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시각(視角)으로 본다면, 점을 치고 이를 해석하는 정인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균열의 모양을 빙자(憑藉)하여 미래에 벌어질 일을 군왕(君王)에게 점사(占辭)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였을 것이다.

사실 정인(眞人)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말한 내용은 상당히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원 사람이 믿고 따르게 하려면 신탁(神託)의 형식을 비는 것이 효과적 이었을 것이고, 결국은 점(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미래를 위해 군왕에게 충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점을 쳐보지 않아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지 남송 고종(高宗) 때 오신(吳伸)이라는 관원이 황제인 고종에게 '점을 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편지를 올린 일이 있다. 이 시기에 고종의 아버지 휘종과 형님 흠종은 금(金)에 포로가 잡혀 갔고 중원지역을 몽땅 내주고서 고종은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었다. 금(金)은 유예(劉豫)라는 괴뢰(傀儡)를 제(齊)의 황제로 세우고 중원지역을 그 영토라고 하더니 금(金)은 유예의 군사와 힘을 합쳐서 남송을 공격하고 있었다. 또 전쟁을 치르느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자 살림살이가 엄망이 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못살겠다고 하더니, 금

기야 도적이 되어 관군과 맞서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고종은 어떻게 이 난제(難題)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몹시 답답했을 것이다. 아마도 점이라도 쳐 보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때에 우적공랑(右廸功郎)·신감광주치구장염세(新監廣州眞口場鹽稅)인 오신이 황제 고종에게 편지를 올린 것이다. 현재를 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점을 쳐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오신이 가진 우적공랑이라는 관직은 그다지 높은 벼슬이 아니다. 더욱 광주(廣州)에서 염세(鹽稅)를 감독하는 힘든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점을 칠 필요도 없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였을까? 그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간 당시에 남송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금과 전투에서 군사가 승리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남송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는 한세충(韓世忠), 유광세(劉光世), 악비(岳飛), 장준(張俊) 같은 장수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눈에 띌 정도로 서로 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오신은 제일 먼저 어떻게 대장을 세워야 할지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먼저 전국시대에 조왕(趙王)이 진(秦)과 대결하면서 조괄(趙括)을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大將)으로 임명했을 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냈던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다. 조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조사가 낸 병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대답한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이러한 명성 때문에 조왕은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사실 조괄은 유명한 장군 조사(趙奢)의 아들이다. 그는 장군 집안에서 자라서 병법(兵法)에 통달하여 조나라에서 병법지식에 관한 한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다. 조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조사가 낸 병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대답한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이러한 명성 때문에 조왕은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조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자기 남편 조사는 대장이면서도 병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고 전쟁에 나갈 때면 집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전투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 조괄은 대장이 되자마자 우선 집안 살림을 늘리려고 전답부터 사들였고, 신분이 대장이 되었다고 거들먹거렸다. 이를 본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병법은 달달 잘 외웠지만 실전(實戰)에서는 병법서에 나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때에 병법을 조합하여 민활(敏活)하게 운영하지 못할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괄은 전장(戰場)에 나가서 진(秦)과의 전투에서 참패하였다. 그가 거느리고 간 40여만 군사의 절반을 잃었고, 남은 20만 명은 진(秦)에 항복하였지만 전에서는 이들을 먹일 식량이 부족하였고, 그냥 두 었다가는 후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부 구덩이에 산 채로 묻어 버렸다. 역사상 이러한 참패는 그리 흔히 볼 수 없는 대참패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조괄의 이러한 실패를 지상단병(紙上談兵)이라고 경계했다.

오신이 이 고사를 거론한 것은 남송의 고종에게 현재의 상태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지상단병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지상단병하는 사람을 골라내어 남송의 전력을 높이고 하였지만 고종은 오신의 이 편지를 받고 장수들에게 서로 협조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이 뜨뜻미지근한 조치가 이후 남송이 재기(再起)하는데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닐까?

정부가 바뀌었지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듯하다. 물가가, 코로나,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외환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관이 한꺼번에 닥친 듯하다. 이 난관을 해결할 대장이 누구일까? 많은 장관이 임명되었고, 각 기관별로 책임자도 정해졌는데, 그 가운데는 법조문을 달달 외워서 판검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유독 많다. 혹시 이들 가운데 인간사회에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인문학을 도와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행기는 조괄(趙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결과는 점을 쳐 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닐까?

사실 조괄은 유명한 장군 조사(趙奢)의 아들이다. 그는 장군 집안에서 자라서 병법(兵法)에 통달하여 조나라에서 병법지식에 관한 한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다. 조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조사가 낸 병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대답한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이러한 명성 때문에 조왕은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4대문 명칭에 담긴 유교이념

조선의 건국이념이 유교이기 때문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그 설계부터 유교정신이 반영되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개념에 따라 4대문과 종각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유교의 개념이다.

동대문 : 홍인지문(興仁之門) 인자하고 선한 것을 펼치라는 의미

서대문 : 문의문(敦義門) 의 즉 읊은 것을 추구하자는 의미

남대문 : 승례문(崇禮門) 예의를 승상하자는 의미

북대문 : 숙정문(肅靖門) 맑고 깨끗하고 청결함을 지키자는 의미(처음엔 肅清門)

종각 : 보신각(普信閣)

경복궁은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로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큰 복을 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1395(태조4년)에 세워졌고 임진왜란 때 불타 273년 후 혼성대원군(1865. 고종2년)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경복궁 원쪽 종묘에서는 왕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경복궁 오른쪽 사직단에서는 나라 경제의 근본인 토지와 곡식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복궁 안동시에서도 유교문화의 이념인 인의예지신을 상징하는 5대 관문(關門)으로 동인문(東仁門, 국도 34호선 영덕방면 안동대학교 부근)

서의문(西義門, 국도 34호선 예천방면 송교 인근)

남예문(南禮門, 국도 5호선 대구방면 수상동과 남후면 경계지점)

도신문(陶信門, 국도 35호선 도산방면 안마제) 등

4대문은 2012년에 설치하고, 국도 5호선 사단 옆 도로 영주방면에 학지문(鶴智門)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다.

청개青階 권오진權五辰

■ 수필 - 권혁모

탁발 유정(托鉢有情)

한 편의 서정시라 하여도 될 구수한 노랫가락이 있다. 지난 80년대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는 정태춘의 '탁발의 새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승냥이 울음 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운 저 숲길을 /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 길섶의 풀벌레들 저리 우니 석가세존이 다녀가셨나 / 본당의 목탁 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어서 가자 ~"

늑대의 한 종류인 승냥이 울음을 따라, 별빛 차운 숲길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으로 어서 어서 가야 한다는 스님의 분주한 발걸이에 애잔하게 그려진다. 절장은 셋째 연에 있다. 길섶의 풀벌레 울음과 석가세존은 어떤 관계인가?

사실 '풀벌레'와 '석가세존'은 어떤 관계 설정이 불가하지만, 석가세존이 다녀가신 것을 축하하기 위한 풀벌레의 울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만물에도 '불성'이 깃든다는 불법의 원리가 아닐까? 미물도 그러하거늘, 목탁 소리 들으며 부처님 계신 곳 가까이 가야 한다는 다짐이 성경誠敬스럽기만 하다.

"잠을 씻으려 악수를 뜨니 그릇 속에는 아이 얼굴 / 아저씨~ 하고 부를 듯하여 얼른 마시고 돌아서면 / 뒷전에 있던 동자승이 눈 비비며 인사하고~"

2절은 '아이'와 '동자승'이 나오는데, 이 또한 중생의 둘레를 빼져나오지 못할 가족이라는 본성으로 우리를 짚어 만들고 있다.

몇 해 전 인도차이나반도의 불교 나라 라오스를 찾았던 적이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벼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여행에서 가장 기대가 커던 고대 왕국의 수도 루앙프라방, 새벽 여명이 밝아 올 무렵 경건한 마음으로 탁발의식이 있는 곳으로 갔다.

라오스의 승려들은 매일 새벽에 주황색 가사袈裟를 입고 사원 근처를 맨발로 걸으며 탁발의식을 수행한다. 노스님이 앞장서고 짧은 스님과 어린 스님들이 줄을 이어 천천히 걸으며 탁발 음식을 한 줌씩 건네받는 모습이 이채롭다. 탁발한 음식은 스님들의 하루 양식이며, 남은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나누어 준다고 한다.

탁발은 밤이 주었으며 그 외 과자와 과일, 음료수 등이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탁발을 위해 밤을 사서 긴 대열로 앉아 조금씩 건네고 있다. 세상에서 이렇듯 아름다운 모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탁발(시주)이 있었는데, 밤이 아니라 주로 곡물이거나 돈을 건네기도 했으며, 스님이 목탁을 치며 안위를 염불하여 주었던 때와 비교된다.

라오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사발하여 출가해야 하며, 이것이 이곳 문화의 근본인 듯, 나누고 비우며 불심으로 살아가는 정신문화가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었다.

매일 새벽이 재가자와 출가자가 만나는 탁발의

시간이다. 정성을 다하여 주며 받아서 수행 정진하는 모습에서 승려와 비 승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로 극진히 섭길 수 있는데, 과연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마디(三昧)의 우화 중 <탁발승과 여우>의 이야기가 있다.

탁발승은 들길을 가던 중 네 발과 다리가 없는 여우를 만나서 매우 놀랐다. 그것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있으니 말이다. 이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탁발승은 겁에 질려 몸을 숨기며 지켜보았다. 사자는 옛돼지를 사냥하여 끌고 오더니, 여우 앞에서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고기를 그 자리에 두어 여우가 먹게 하였다.

놀란 탁발승은 다음 날에도 지켜보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며 "아, 나도 저 여우처럼 자비로우신 손길에 나를 맡겨야 하리라"하며 구석에 누워 며칠을 기다렸지만, 자비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느덧 힘이 다 빠져갈 무렵에 탁발승은 지나가는 한 성자에게 그 자초지종을 알리며 물었다.

"성자님 나는 왜 자비로우신 공양을 받지 못합니까?"라는 말에 그 성자의 대답은 "하늘의 계시는 당신이 믿었던 여우처럼이 아니라 사자처럼"이라며 심하게 꾸짖었다.

그렇다. 받기만 하는 여우의 모습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공양을 나누는 것. 탁발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는 것,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침을 맞이하려는 라오스 사람들의 탁발 의식이 한없이 아름답고 고결해 보임은 웨일까?

탁발은 무소유의 풍요로움을 위한 의미기도 하지만, 지나친 욕심과 만용을 경제하며 보시부施하는 자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다.

하루 며칠 만큼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소박한 어촌 사람들, 이 세상을 뜰 때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조금씩 얻고 나누려는 탁발은 꼭 불가에서 만의 의식이어야 할까? 사바娑婆의 세상에서 베릴 것이 너무 많아서 소중한 것이 없다는 아이러니를 곱씹어 본다.

공양물이 담긴 바구니를 앞에 두고 탁발승에게 드리려는 고귀한 손길이 오늘따라 더욱 뜨겁게 다가온다. 나만의 생각일까? 내 사랑도 날마다 누구에게 탁발하는 푸른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다.

■ 악력-권혁모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84년), 시집 '첫눈' 외,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한국시조시인협회 작품상, 한국꽃문학상 특별상, 월간문학상, 영축문학상, 한국문협 안동지부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문인문화정보화위원장, 한국시조시인협회 자문위원, 영축문학회 이사, <오늘>동인.

08240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121, 101동 906호 (고척동, 고척파크푸르지오)

poem000@daum.net

CP 010-3088-0537

중복을 맞아 안동종친회 간담회 개최



언에 따라 몸가짐에 유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친회 회칙개정은 물론, 원로원을 구성하고 또 낡은 안동종친회 관건물을 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 이어 권 회장은 공식중인 사무국장에 권기원씨(32세, 호장공파)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철환 회장은 중복을 맞아 삼계탕과 문어, 수박 등을 준비했으며 특히 삼계탕에 넣을 인삼은 영주시 풍기읍에서, 물은 청송군 달기 약수탕에서 가져 오는 등 정성을 쏟아 맛이 훨씬 좋았다.

식사가 끝나자 후식으로 수박을 먹으면서 정답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